

기름띠에 망가진 생활터전... 양식장 피해 말도 못하고 속앓이

동거·서거차도 주민들 미역 채취기 시름 제철 꽃게잡이 조업 중단 등 한숨만 가득

27일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4~5km 떨어진 조도와 동·서거차도 인근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침몰 사고 이후 퍼져나온 기름띠가 양식장을 덮치면서 생활 터전이 망가지는 데도, 구조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 속앓이만 하고 있다.

어민 상당수는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조업중이던 통통배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 해경과 함께 수습명의 승선객을 구조하거나 물으로 이승했던 사람들이다.

◇기름띠 밀려들어=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사고 3일 뒤인 지난 19일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27일에는 사고 현장에서 4~5km 떨어진 동·서거차도의 미역 양식장까지 흘러와 양식장 부표에 달라붙는가 하면, 미

역도 오염시키고 있다.

동거차도 동막어촌계 여성일 어촌계장은 "6월 말까지 한창 채취기인데 미역밭 안으로 기름이 침투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어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막막한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는 모두 40여 가구가 동거차도 29ha, 서거차도 12ha 등 모두 41ha의 면적에서 미역 양식을 하고 있다.

서거차도의 허모씨도 "미역 양식은 지역 어민들의 1년 중 가장 큰 농사"라며 "기름 때문에 미역에 유막이 생겨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세월호는 방커C유 13만9000ℓ, 경유 3만9000ℓ, 윤활유 2만5000ℓ 등 기름 20만3000ℓ 가 적재돼

기름유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도면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일대에서 이달 초부터 5월 말까지 수확하는 미역은 청정 미역으로 알려지고 상품성이 좋아 인기가 좋다.

해경은 연일 사고 현장 주변에 수십 척의 방제정을 투입해 기름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미역 양식장이 있는 곳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정해역에서 채취해 곧바로 팔거나 건조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자연산 미역, 톳, 뜸부기 등 자연산 해조류 등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제철을 맞은 꽃게잡이 조업 중단에 다가가 벌치잡이 조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고 있다.

양식 미역은 1룬(20줄기·10kg정도)에 17~20만원선, 자연산 미역은 품질에 따라 1룬에 50~7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도 못하고 속만 태워=어민들은 기름띠가 밀려오는데도, 하소연을 하거나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1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태껏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여기에 부진한 기름띠 제거 작업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형편이다.

동거차도에 살며 사고 당일 구조작업에도 동참했던 한 어민은 "어떻게 자식 새끼 시신도 찾지 못한 부모 앞에서 양식장 피해를 말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어민들은 대신, 현재 구조·수색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서는 한편, 향후 피해 보상 등을 감안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27일 동거차도의 한 어민이 미역 양식장에서 가져온 기름 묻은 부표(왼쪽)와 미역 양식장에 나가 직접 찍은 기름띠 묻은 미역 줄기 사진. <동거차도 주민 정진배 제공>



세월호 침몰 12일째인 27일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진도군 팽목항에서 수녀들이 실종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발...애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퇴선명령 안내린 건 선박보험금 때문?

선장→해무담당자→상무→사장 보고 불구 회사선 지시없어

청해진해운 이해 못할 조치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당시 회사에 배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회사로부터 퇴선 명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YTN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은 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시각 제주 VTS센터와 진도 VTS센터에 구조신호를 보낸 사람은 1명뿐이었다.

이 선장은 선박의 안전과 운항을 총괄하는 청해진해운 인천지점 해무담당자 B씨와 첫 번째 통화를 했다.

B씨는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도 즉각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못하고 A상무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 A상무는 또 김도 사장에게는 문자 보고를 했으나, 이 선장은 누구로부터도 퇴선 명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경 함정이 도착하자 오전 9시 38분쯤 이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을 내 버려둔 채 먼저 탈출했다.

YTN보도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 측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는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험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선박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 관계자는 “선박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보험금 지급과 감액 여부는 선박 인양 후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77억7000만원과 36억원씩 모두 113억7000만원의 선체보험을 든 상태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선내 카펫·이불 등 잠수부 진입 방해...소조기 끝나고 날씨까지 최악

구조·수색작업 난항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인 27일 사고 해역에는 기상이 좋지 않아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선내에 쌓인 카펫, 이불, 가구 등이 구조·수색작업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로 부상했다.

◇'악천후'에 진전 없어=사망자 신원은 모두 확인= 이날 사고 해역에는 바람이 초속 10~14m로 강해졌고 파고도 2m 안팎으로 높아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팀은 정조 시간대에 맞춰 이날 새벽 선내에 진입했으나 수색에 진전이 없고 객실 수색범위(111개 객실 중 35개 수색)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구조팀은 잠수사 98명을 현장에서 대기시키고 이날 오후 1시께 다시 수색을 재개했으며 기상 여건에 맞춰 가능한 많은 인원을 투입, 4층 좌현 객실을 중심으로 수색할 방침이다. 미국 해군 소속 잠수전문가 4명은 전날 해군 함정에 도착해 기술자문을 하고 있으며 잠나 잠수장비 등을 갖춘 미군 구조

함 세이프 가드호는 다음 주 초 현장에 투입된다.

대책본부는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가족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인양 결정이 날 경우)에 대비해”정부 차원에서 인양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준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사망자는 188명, 실종자는 114명이며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 186명은 가족에게 인도됐다.

◇ 선내에 장애물 쌓여...잠수사들 수색 어려워 호소=시신 2구를 수습한 지난 26일 이후 한 하루 동안 시신 1구를 수습한 것 이외

에는 수색에 큰 진전이 없다. 잠수사들은 특히 실종자 다수가 물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 4층 선수 쪽 다인실 등에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류 흐름도 빨라진데다 기상까지 악화된 점도 있지만 선체 내 '장애물' 탓에 수색이 힘들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김석국 해양경찰청장은 “선내 곳곳에서 물을 먹은 카펫, 이불, 가구 등이 톳과 객실 등을 막 채워 진입·구조·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임준표 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구호물품 빼돌리고 악성 댓글 올린 '무개념' 남성들

○세월호 침몰 사건을 틈타 구호물품을 빼돌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린 '무개념' 남성들이 경찰에 입건.

○진도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도체육관, 팽목항 자원봉사자 전막 등에서 구호물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

모(39)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날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사진 등을 올리면서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오인, '선동꾼' 등으로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석모(29·무직)씨 등 2명을 입건.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 광주 동구 대인동 308-1, 2층상가 (대지 101.8㎡, 건물 145.4㎡)
- 광주 북구 북동 56-2 플립빌리지(원룸) 5건 (각 호당 26.64㎡)
-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8 갤러리존 지하1층 상가 13호, 31호 (건물 38.1㎡, 건물 196.4㎡)
- 광주 남구 봉선동 85-3전, 산 61-2 입야(17,203㎡)
-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12, 412-2, 412-4 주유소, 휴게소, 모텔(대지 9,142㎡ 건물 774.9㎡)

상담 후 가격 결정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62-361-3515)로 문의바랍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 (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광주원광신협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